

## 소외된 이웃들과의 아름답고 따뜻한 동행

예수성심시녀회, 대구시 남구에 위치한 성모자애원의 대표 광지숙 수녀(57)가 몸담고 있는 곳이다. 수녀회 대신 시녀회라 명한 이유 있다.

“시녀로서 나를 낮춰 섬기고 살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가족정신을 실천하라’는 것이 남대영 신부님의 정신입니다.”

프랑스 출신인 남대영 신부(본명 루이 텔랑드, 1895~1972)는 1923년 한국에 파견된 후 1936년 성모자애원을 설립해 전쟁고아와 빈민, 한센인, 장애인 등에게 사랑과 나눔을 실천했다. 남 신부의 빈민구호 활동을 시작으로 일제강점기와 6.25 등 혼란기 속에서 소외계층의 안식처가 돼온 지 올해로 85년째다. 성모자애원의 성장과 변천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이기도 하다.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해 빈민구호 활동을 시작했고 전쟁 이후에는 빈민과 고아, 버려진 노인들을 돌보는 데 힘을 쏟았다.

### 다양한 복지 서비스에 주력

1977년 성모자애원은 재단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으로 변경하고, 복지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을 높여 나갔다. 전쟁고아들이 성인이 돼 사회에 진출하면서 보육시설은 문을 닫았다. 대신 여성지체장애인지원 시설 및 중증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설립해 장애인 복지지원 영역을 확장했다.

노숙인이 늘어나자 노숙인복지시설을 설립했고, 무료급식소를 마련했다. 고령화 문제가 떠오르자 노인 복지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현재 성모자애원에서는 대구요셉의 집(무료급식소), 나자렛집(노숙인 요양시설), 루도비꼬집(청소년 중증장애인시설), 마리아의 집(여성 중증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인 햇빛마을과 용평마을의 복지시설 6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바로 우리 가족’이라는 남 신부의 정신은 성모자애원 산하 여러 시설에서 빛나고 있다. 햇빛마을은 노인들에게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도 천 기저귀를 사용한다. 주방



성모자애원이 운영하는 여성 지체장애인지원시설에서 생활인과 함께 산책 중인 광지숙 마리아의 집 대표수녀(왼쪽).

의 음식 정성까지 소문나서 정원 90명인 이곳의 대기인원은 200명이 넘는다. 2020년 3월, 코로나19가 대구를 휩쓸었을 때도 성모자애원의 가족정신은 어김없이 발휘됐다. 대부분의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은 상황에서 대구요셉의 집은 노숙인들을 위해 도시락을 준비했다. 아침마다 든든한 도시락과 함께 마스크를 챙겨 노숙인들에게 나눠 주었다. 급식소가 쉬는 수요일과 일요일에는 컵라면, 바나나 등을 준비해 노숙인들이 사는 곳을 직접 찾아갔다.

최근 복지 영역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법인을 이끌어가는 광 대표수녀의 고민도 깊다.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는 기존 거주시설을 정리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다. 서울에 리틀요셉집을 열어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공부방을 운영하고, 부산에서는 가난한 노인들을 찾아 말벗 활동을 하는 이유다.

앞으로도 성모자애원은 더 어려운 곳에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일 예정이다.  글 양문실 작가